

제6회 2025학년도 전공세미나(호시탐탐)

〈책과 독서의역사〉특강

나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

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

2025년 11월 17일(월) 오후 3시~5시

대강당 아주홀

강연 후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"만일 내가 자네를 도운 게 있다면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.

나는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었을 뿐이니 자네는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감사해야 한다."

『호의에 대하여』, 86쪽